

# “미래 전략산업 육성·시민행복 도시 집중”

올해 새해설계

박홍률 목포시장

## 목포신항 중심 해상풍력·친환경선박 산업 육성 수산업 경쟁력 ↑...제1수산식품산업도시로 '도약'

“올 한 해는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시민행복 도시를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해상풍력산업·친환경선박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

며 “목포신항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산업을 발전시키고, 친환경선박 기술개발과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기술개발을 위한 1천700억원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또한 남향 친환경선박 교육연구지구



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단지로 조성되며, 중소형 선박 수리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도 가속화될 예정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를 대응하고자 목포와 신안 통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특히 미래인재 양성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계획이다. 교육발전 특구 시범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와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

랫폼 구축을 통해 청년의 역량을 키우고 취·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목포의 수산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포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은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수출주도형 김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 마른김 거대소 개장, 해수취수시설 3호기 신설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새로운 지역 특화산업으로 어묵산업을 육성해 목포의 수산업 경쟁력을 높여 전국 제1위 수산식품 산업도시로의 도약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유달산 서면 유원지 조성, 북향

노을공원 명소화사업, 남향재개발, 목포대교 야간경관 사업,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 조성사업 추진으로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을 위해 소규모 항만재생사업, 고하도 바다낚시 공원,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사업들을 단계별로 추진해 1천만 관광객 시대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두가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후변화 대응과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어르신 건강지원, 치매 예

방, 공공의료시설 확충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한다. 또 지역의 오랜 숙원인 국립대 및 대학병원 목포 건립에도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내년에도 초심 불망(初心不忘)의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청년이 찾는 큰 목포’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민선 8기 계획들을 똑실있게 실행해 나가겠다”며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불의의 사고로 큰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 완도 해조류 부산물, 어가 소득 증대 효과 ‘톡톡’

1천948개 전복어가·833t 먹이 공급

완도군에서는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지원 사업을 추진해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어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1일 완도군에 따르면 해조류 생산 과정에서 바다에 버려지는 부산물을 수거·저장해 전복 먹이가 부족한 시기에 양식 어가에 공급하고 있다.

올해는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지원 사업 ▲전복 먹이용 해조류 저장·공급 사업 ▲가을철 전복 먹이 공급 지원 사업 등을 통해 1천948개 전복 양식 어가에 833t의 전복 먹이를 지원했다.

또한 해조류 부산물을 가공해 전복 치패 사료로 제조해 이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양식 어가의 생산비 절감에 기여했다.

사료 제조 업체에서는 해조류 부산물을 원재료로 활용해 올해 10만포의 사료를 생산·판매하며 53억원의 매출을 기록,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했다.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지원 사업의



완도군이 해조류 생산과정에서 바다에 버려지는 부산물을 양식 어가에 공급해 먹이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진은 해조류 채취 작업 모습. (완도군 제공)

지난해 사업비는 6억2천500만원이었으며, 올해에는 2억5천만원이 증액된 8억7천500만원으로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완도군 관계자는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지원 사업은 전복·해조류 양식 어

가, 사료 제조 업체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며 “앞으로도 해양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강진군과 농업이 최근 강진군 농업통합RPC에서 강진쌀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알리는 몽골 수출 상차식을 개최했다. (강진군 제공)

## 강진쌀, 첫 해외시장 개척 몽골 수출길

509t 규모 계약...중국·필리핀 수출 확대

강진군은 “최근 강진쌀 수출 확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며, 몽골과 500t 규모의 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강진쌀 20을 첫 선적하며 몽골 시장으로의 본격적인 진출을 알렸다.

특히 이번 몽골 수출은 강진쌀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 첫 시작이 될 전망이다. 1월부터는 중국 헨진 시장에 3천t 이상의 물량을 수출할 계획이며, 이후 필리핀까지 쌀 수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강진쌀이 중국으로 원활하

게 수출될 수 있도록 각종 등록 절차를 신속히 완료했으며 현재 중국에서의 가공공장 등록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가공공장 등록은 중국 수출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데 중요한 과정으로, 강진쌀의 품질과 신뢰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반이 된다.

이번 몽골 수출을 위해 강진군은 농업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수출 바이어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갔다.

김달욱 강진군농협통합RPC 대표는 “몽골 수출은 새로운 시장 개척의 시발점이자, 강진쌀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

를 높이는 중요한 기회”라며 “수출 선적을 시작으로 향후 더욱 많은 물량이 몽골로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몽골과 중국 수출은 강진쌀이 글로벌 농식품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강진쌀의 우수성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국가에 알리며 해외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해 강진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이번 몽골, 중국 및 필리핀 등 수출 성과를 통해 지역 농업의 재도약을 꾀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국내 쌀 산업이 직면한 재고 문제와 소비 부진을 해소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정영록 기자

## 무안군, 제주항공 사고 수습 ‘총력’

현장통합지원본부 가동·유가족 1대1 전담공무원 지정

무안군은 1일 “지난달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현장통합지원본부(사진)를 가동하고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직후, 무안군은 소방서·경찰서·행안부·국토부·전남도 등과 긴급 대응을 시작해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구호 활동에 나섰다.

또한 무안군은 유가족 1대1 전담 공무원을 지정 운영하고 무안스포츠파크에 마련된 합동분향소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유가족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무안군은 오는 4일까지 지정된 국가 애도기간에 맞춰 연말·연초 진행될 예

정인던 모든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취소했다. 특히 18일부터 19일까지 열릴 예정이던 무안겨울송어축제도 전격 취



무안군 현장통합지원본부 회의 모습. (무안군 제공)

소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무안의 상황 수습과 피해자, 유가족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사고로 인한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김상호 기자

## 나주시, 나눔 가치 ‘명예의 전당’서 기린다

인재육성·희망나눔·고향사랑 부문 고액 기부자 선정

나주시가 나눔을 통해 지역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한 기부자들의 고귀한 가치를 명예의 전당에서 영구히 기린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사 1층 로비에서 ‘기부 명예의 전당’ 제막식 행사를 개최했다. 시청사 로비 중앙계단 벽면에 설치한 기부 명예의 전당은 ‘인재육성’, ‘희망나눔’, ‘고향사랑’ 등 3개 부문 기부자 명단으로 채워진다.

기부 명예의 전당은 “각계각층의 나눔과 기부의 가치를 기리고 더 따뜻한 나주의 미래를 밝히는 발자취를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윤병태

시장의 지시에 따라 조성됐다. 시는 3개 부문서 일정 금액 이상을 기부한 고액 기부자의 이름 또는 기관·단체 명칭을 황금빛 현액판에 새겨 영구적으로 보존할 계획이다.

현액판은 총 984개로 시는 제막식을 통해 기부자 186명을 나주시 기부 명예의 전당에 처음으로 현액했다.

특히 장학사업, 나주시민회관 기증 등 고향 발전과 인재 육성에 관심을 갖고 꾸준한 나눔을 실천했던 금하장학재단 고(故) 서상록 회장과 “한 톨의 세금도 고향에 납부한다”며 법인 주소를 나주에 두고 장학사업을 펼쳤던 대신송촌문화재단 고

(故) 양재봉 회장이 기부 명예의 전당에 현액됐다.

현액 대상자는 명예의 전당 선정위원회 통해 선정된다. 위원회는 시의원, 기관·단체 대표, 나주 역사에 조예가 깊은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했다.

개인 기부자는 500만원 이상을 기부하면 현액 자격이 주어지며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는 2년마다 진행된다.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115억9천만원 규모로 기부 문의는 나주시 교육진흥재단으로 하면 된다.

윤병태 시장은 “기부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따뜻한 마음을 지역에 전파하고 희망의 주춧돌을 놓는 매우 가치있는 행위”라며 “기부 명예의 전당을 통해 기부자들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록하고 명예를 드높이며 나눔의 가치를 선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 영광군,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군 운수업체 운행 노선 한정...대중교통 활성화·교통복지 향상

영광군은 1일 “새해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교통복지카드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수

령한 교통복지카드를 갖고 농어촌버스를 횡수제한없이 탑승할 수 있다.

다만, 교통복지카드의 적용범위가 영광군 농어촌버스 운수업체가 운행하는 노선에만 한정돼 있어 합평교통, 장성교통, 고창교통 등 인근 지자체 버스에는 교통복지카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활성화해 얻어붙은 지역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 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영광군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신청자 및 생일이 지나 만 65세가 되는 자는 주소지 기준 읍면사무소에서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영광=김동규 기자

## 염삼김밥, 영암 쌀 등 우수 특산물 사용

농특산물 소비 촉진 MOU...메뉴 개발·마케팅 홍보 등 지원

영암군은 “최근 군정에서 분식 전문 프랜차이즈 ㈜염삼과 ‘우수 농특산물 소비 촉진 및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식에서 두 단체는 영암 쌀을 포함한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판로개척

과 마케팅 홍보에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염삼은 주메뉴인 김밥에 영암 쌀을 사용하고, 영암의 우수 농특산물을 활용해 새로운 분식 메뉴를 개발해 판매하기로 했다.

나아가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식재

료 사용해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암군은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신선하고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프랜차이즈의 신 메뉴의 마케팅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쌀을 쓰는 염삼김밥이 영암 농가와 프랜차이즈 기업이 상생하는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